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③	①	②	①
6	7	8	9	10
①	⑤	④	⑤	②
11	12	13	14	15
②	③	⑤	③	①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①	①
21	22	23	24	25
④	①	①	④	④
26	27	28	29	30
④	②	③	④	⑤
31	32	33	34	35
④	⑤	②	⑤	⑤
36	37	38	39	40
②	②	③	④	③
41	42	43	44	45
④	①	①	③	⑤
46	47	48	49	50
①	①	④	④	②

<1번 오답 해설>

- ②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사람들이 산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④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⑤ 주먹도끼, 찌개 등 뎨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 ③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 ④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⑤ 주먹도끼, 찌개 등 뎨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정답> ③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화순 고인돌 유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서는 덧개돌을 깨낸 채석장이 발견되어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어 가능해진 것인데, 특히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썰이 등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경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우경(牛耕):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는 일. 우경이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이다(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으로 짐작,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삼국사기』). 아울러 이때 수리 사업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02 - 초기 국가, 부여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성 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 ②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③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④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정답> ③

'금동 얼굴 모양 장식'이라는 제목 아래 '이것은 송화강 유역에 위치했던 이 나라의 유물로 고대인의 얼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나라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와 형사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부여는 (대가들인)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신성 구역인 소도(蘇塗)*를 둔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 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 ②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 ④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에서 열림).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든 나라는 고조선이다.

03 - 김해의 금관가야

3.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 ②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 ③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정답> ①

문화유산 검색창에 '김해 양동리 고분군'이 나와 있고, 고분군 발굴 전경 사진과 함께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유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발굴 조사 결과 널무덤, 독무덤 등 600여 기의 유구와 토기, 청동기, 철기 등 5,2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금관가야의 토기와 철제 판갑옷, 투구 사진도 제시).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532, 신라 법흥왕 19).

오답 해설>

- ②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둔 나라는 발해이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 ③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나라는 백제이다[무령왕대(재위 501-523, 제25대)].
- ④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나라는 신라이다. 화백 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 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04 - 백제 멸망 이후의 사실(보덕국)

4.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한 흑치상지는 추장 10여 인과 함께 도망하여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열흘 만에 휘하에 3만여 명이 모였으며 곧 200여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 ②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 ③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 ④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⑤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②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한 흑치상지는 추장 10여 인과 함께 도망하여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열흘 만에 휘하에 3만여 명이 모였으며 곧 200여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백제의 멸망 이후 일어난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60.8~663.8).

안승(?~?)이 (지금의 전북 익산 지역에 세워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된 것은 674년(신라 문무왕 14)의 일이다(~683).

오답 해설>

-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에) 승리한 것은 612년(고구려 영양왕 23)의 일이다(수의 2차 침입 시).
- ③ (위의) 관구검(?~255)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환도성*이 함락된 것은 244년(고구려 동천왕 18)의 일이다.
*환도성: 209년(산상왕 13)에서 427년(장수왕 15)까지 고구려의 수도
- ④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개 성을 빼앗은 것은 642년(백제 의자왕 2)의 일이다.
- ⑤ 계백(?~660)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운 것은 660년(백제 의자왕 20)의 일이다(660.7).

05 - 고구려 장수왕(평양 천도)

5.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④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답> ①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구려본기'가 나와 있고, 이어 '(재위) 56년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다', '60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다', '63년 백제 도성을 함락시키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각 468/472/475).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검색창에는 고구려의 제20대 왕인 장수왕(재위 413-491)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직주성: 지금의 강원도 삼척 지역

장수왕은 재위 15년인 427년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평양 천도).

오답 해설>

- ②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의) 왕은 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이다(313, 미천왕 14).
- ③ (국상) 을파소(?~203)의 건의로 (빈민 구제를 위한) 진대법을 실시한 (고구려의) 왕은 고국천왕(재위 179-197, 제9대)이다(194, 고국천왕 16).
- ④ 영락(永樂)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 대왕(재위 391-413, 제19대)이다(391). 영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기도 하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전진의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의) 왕은 소수림왕(재위 371-384, 제17대)이다(372, 소수림왕 2).

06 - 발해

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 ②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 ③ 내신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 ④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 ①

'VR 온라인 전시실'이라는 제목 아래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의 문화유산을 VR 파노라마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영광탑, 정효 공주묘, 석등'이 사진과 함께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즉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 기관).

오답 해설>

②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 [각 687(신라 신문왕 7)/685(신문왕 5)].

③ 내신좌평 등 6좌평(과 16관등제)의 관제를 정비한 국가는 백제이다(260, 백제 고이왕 27)*.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 회의 수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다고거나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④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한 나라는 신라이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의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통제[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 중 한 명을 일종의 볼모로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이다(5세기 이전부터 실시 추정). 고려의 기인 제도, 조선의 경저리 제도로 이어졌다.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국가는 백제이다(부여씨→고구려 동명왕 계통). 왕비족으로 진씨와 해씨가 있었고, 귀족으로 사씨(사택씨), 연씨, 국씨, 목씨, 백씨, 협씨가 있었다.

07 -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의상의 활동

7. 밑줄 그은 '이 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②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③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④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였다.
-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정답> ⑤

'부석사는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 승려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여름밤 달빛 아래 문화유산의 정취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묘 설화 미디어 아트 영상 관람'과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열쇠고리 제작'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승려'는 신라의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의상(625~702)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이 경북 영주에서 부석사*를 세운 것은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의 일이다.

*부석사 창건 설화: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는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浮石寺)로 불렸다.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668, 문무왕 8).

오답 해설>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신라의) 승려는 화쟁국사 원효(617~686)이다. 원효는 파계하여 속인 행색에 표주박 모양의 그릇을 들고 거리를 돌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불교 가요).

②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신라의) 승려는 원광(555~638)이다(601, 진평왕 23).

③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신라의) 승려는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④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한 승려는 고려의 각훈(?~?)이다(1215, 고종 2).

08 - 신라 신문왕의 업적

8.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⑤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이 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아버지인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를 완공했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완산주와 청주를 설치하여 9주를 갖추었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왕'은 신라의 제31대 국왕인 신문왕(재위 681-692)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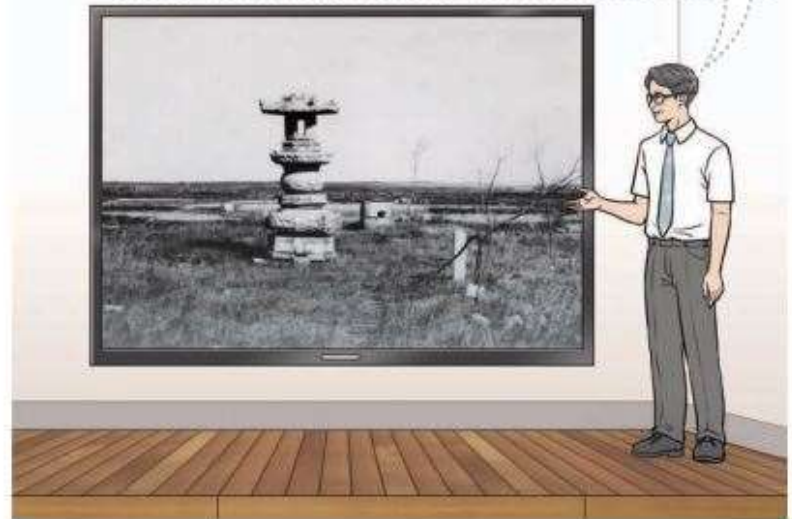
- ① 거칠부(502~579)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한 (신라의) 왕은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다(545, 진흥왕 6).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게 한 (신라의) 왕은 지증왕(재위 500-512, 제22대)이다(512, 지증왕 13).
-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신라의) 왕은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제23대)이다(536, 법흥왕 23).
- ⑤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신라의) 왕은 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이다(788, 원성왕 4).

09 - 후고구려의 궁예(광평성)

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사진은 (가)이/가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 터에서 촬영된 석등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①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③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 ④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정답> ⑤

'이 사진은 (가)이/가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 터에서 촬영된 석등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궁예가 후고구려의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은 재위 11년인 911년의 일이다(연호 수덕만세).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는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904).

오답 해설>

- ① 금마저, 즉 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인물은 백제의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이다(639, 무왕 40).
- ②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후백제의 견훤(867~936)이다. 후백제 건국을 전후하여 오월과 교류하다 925년 이후에는 새롭게 건국된 후당과 교류하였으며 927년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③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한 인물은 고려의 왕건(877~943)이다(936.9). 일리천은 지금의 경북 구미 지역이다.
- ④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인물은 고려의 충목왕(재위 1344-1348, 제29대)이다(1347, 충목왕 3). 하지만 부원 세력들의 반발로 본격적 활동은 3개월 만에 와해되고, 정치도감도 결국 2년 뒤인 1349년(충정왕 원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또 사실 정치도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원 혜종(재위 1333-1368, 제15대)의 명령 때문이었다.

10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10. (가)에 들어갈 불상으로 옳은 것은?

[2점]

문화유산 카드

(가)

• 종목: 보물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 소개: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불이다. 고려 초기 호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이어받았다.



정답> ②

'보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처이며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불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려 초기 호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이어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에 들어갈 불상은 고려 초기의 불상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임을 알 수 있다(보물 제332호). 일명 '광주 춘궁리 철불'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①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국보 제119호).

③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 삼존 불상이다. 삼국 시대 신라의 불상으로, 조성 연대는 64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④ 고려 후기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다.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걸쳤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채, 왼손은 왼쪽 다리 뒤로 바닥을 짚고 있는 바 이러한 자세를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세라는 의미로 윤왕좌(輪王坐)라고 한다.

⑤ 부처의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보관(寶冠), 즉 삼산관(三山冠)을 쓴,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참고로 부처가 복잡한 보관을 쓴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다. 또 일본 교토 고류지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현재 일본의 국보 제1호이다(7세기경).

11 - 고려 시대의 대외 관계

11.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

(나)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포로 334명을 구출하였으며, 김사혁은 패잔병을 임천까지 추격해 46명을 죽였다.

(다) 몽골군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간 포위하니 비축한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우며,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니 불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②

(가)에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자겸, 척준경이 금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금의 군신[사대] 관계 요구에 당시 권신인 이자겸(?~1126)의 굴욕 외교로 고려가 이를 받아들인 일을 가리킨다(1126, 고려 인종 4).

(나)에는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포로 334명을 구출하였으며, 김사혁은 패잔병을 임천까지 추격해 46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포 대첩[해전]이 일어난 것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8월이고, 이때 무인 이자 발명가인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만든 화포가 큰 역할을 하였다. 참고로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다)에는 '몽골군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간 포위하니 비축한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우며,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니 불신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충주성 전투가 있었던 것은 몽골의 제5차 침입 시의 일이다(1253, 고종 40).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12 - 고려의 어사대

12. ㉠~㉤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인물의 생애로 보는 고려의 정치 기구



• 출생년 미상

• 1095년 ㉠ 상서성 좌사낭중

• 1101년 ㉡ 추밀원(중추원) 지주사

• 1102년 ㉢ 어사대 어사대부

• 1103년 ㉣ 한림원 학사승지

• 1108년 ㉤ 중서문하성 문하시중

• 1111년 별세

윤관

- ① ㉠ -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 ② ㉡ -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③ ㉢ -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 ④ ㉣ -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 ⑤ ㉤ -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정답> ③

'인물과 생애로 보는 고려의 정치 기구'라는 제목 아래 윤관의 생애와 경력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095년 상서성 좌사낭중, 1101년 추밀원(중추원) 지주사, 1102년 어사대 어사대부, 1103년 한림원 학사승지, 1108년 중서문하성 문하시중, 1111년 별세'로 나와 있다.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는 기구이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한 기구는 조선의 집현전을 들 수 있다(1420. 조선 세종 2). 상서성은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참고로 고려 시대에는 경연이 널리 행해지지 못하였으며, 일시적으로 고려 예종 때 청연각이 설치되어 잠시 경연이 행해지기도 하였다(1116, 고려 예종 11).

②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기구는 춘추관이다. 고려 개국 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고쳤고, 충숙왕 12년인 1325년에 예문관에서 갈라져 비로소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추밀원(중추원)은 군사[군국] 기무, 왕명 출납, 숙위를 담당하던 고려의 중앙 관청이다. 중서문하성과 더불어 양부(兩府)로 불리었다.

④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한 기구는 조선의 한성부이다. 한림원은 국왕의 교서 작성과 외교 문서 작성 등을 담당한 기구이다.

⑤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한 기구는 삼사(三司)이다. 중서문하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이다.

13 - 원 간섭기의 경제 상황

13. 밑줄 그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이달의 책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이암이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전해지는 농서입니다. 원에서 편찬된 이 책은 경간(耕墾)·파종 등 10문(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북 지방의 농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에, 면화, 저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 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②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④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 ⑤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정답> ⑤

'이달의 책'이라는 제목 아래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이암이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전해지는 농서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원에서 편찬된 이 책은 경간(耕墾)·파종 등 10문(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북 지방의 농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에, 면화, 저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가 가리키는 농서는 이암(1297~1364)이 원으로부터 수입한 농서인 농상집요(고려 공민왕 21년인 1372년에 편찬, 중국 최초의 관찬 농서이기도 함)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는 이른바,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넓게 보면 고려 시대).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②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참고로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을 수용하여 초량 왜관이 새로 설치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두모포(豆毛浦) 왜관: 조선 선조 40년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부산 두모포는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아대[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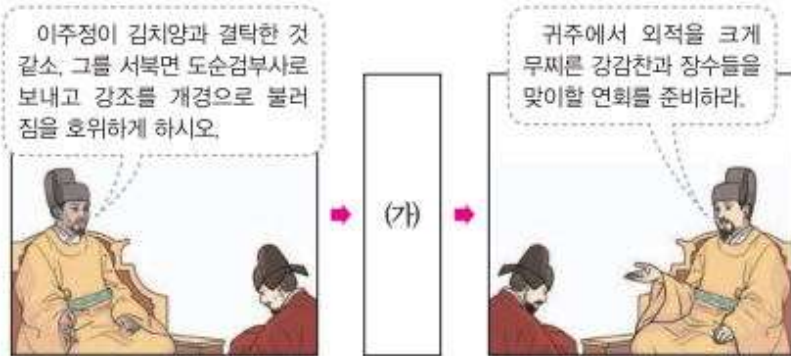
③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재배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④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14 - 거란의 제2차 침입

14.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었다.
- ②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 ③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 ④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 ⑤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주정이 김치양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북면 도순검부사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집을 호위하게 하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왕궁을 호위할 것을 명한 이는 고려 목종(재위 997-1009, 제7대)이다. 하지만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1010)는 곧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하는 정변을 일으켰다[강조의 정변, 1009(목종 12)].

오른쪽 말풍선에는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을 맞이할 연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강감찬(948~1031)이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은 고려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한 거란의 제2차 침입 시, 1010).

오답 해설>

- ①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최무선의 건의).
- ② 신돈(?~1371)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 ④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 ⑤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윤관의 건의).

15 - 삼별초의 항전

15.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 정년도목(政年都目)을 올리니, 최우가 청사에 앉아 받았다. 6품 이하의 당하(堂下)에서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 『고려사절요』 -

- ①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 ②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 ③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 ⑤ 최충헌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답> ①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 정년도목(政年都目)을 올리니, 최우가 청사에 앉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6품 이하의 당하(堂下)에서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최우(집권 1219-1239)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삼별초가 (전남 진도의) 용장성에서 항전한 것은 1270년(고려 원종 11)에서 1271년(원종 12)의 일이다(1270.6~1271.5, 진도 삼별초).

오답 해설>

- ② 정중부(1106~1179) 등이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의 일이다(김보당의 난).
- ③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 ④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 ⑤ 최충헌(집권 1196-1219)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총괄한 것은 고려 희종 5년인 1209년의 일이다.

16 - 경정 전시과와 과전법

16. (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중서령·상서령·문화시중) …… 제18과는 전지 17결(한인·잡류)로 한다.

(나)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1품부터 9품의 산직까지 나누어 18과로 하였다.

- ① (가) -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 ② (가)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 ③ (나) -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④ (나)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 ⑤ (가), (나) -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정답> ④

(가)에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중서령·상서령·문화시중) …… 제18과는 전지 17결(한인·잡류)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려 문종 30년인 1076년에 시행된 경정 전시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전시과의 완성).

(나)에는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1품부터 9품의 산직까지 나누어 18과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에 시행된 과전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과전법에서는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고, 관료 사후에는 회수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조준(1346~1405) 등의 건의로 제정된 것은 (전시과가 아니라) 과전법이다.
- ②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시정 전시과이다(976, 고려 경종 원년).
- ③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시정 전시과 이전의 토지 제도이다.
- ⑤ 전시과와 과전법 모두 수조권만 지급하였지(수조권 분급)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17 - 고려 시대 유학자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고려 시대 유학자〉	
유학자	주요 활동
최승로	(가)
최충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씀
김부식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함
안향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함
이제현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함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함
- ②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제안함
- ③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함
- ④ 지부복궐척화의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함
- ⑤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함

정답> ③

'고려 시대 유학자'라는 제목 아래 유학자의 성명(최승로, 최충, 김부식, 안향, 이제현)과 주요 활동이 차례로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최승로의 주요 활동이다. 최충(984~1068)은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씀'이, 김부식(1075~1151)은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함'이, 안향(1243~1306)은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함'이, 이제현(1287~1367)은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함'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최승로(927~989)는 고려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982, 성종 원년).

오답 해설>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태조 3).
- ②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제안한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1519, 중종 14). 현량과는 사실 사람들의 중용[청요직 임명]을 위해 조광조가 건의한 것이다.
- ④ 지부복궐척화의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한 인물은 면암 최익현(1833~1906)이다(1876, 고종 13). 최익현은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⑤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이다(1577, 선조 10). 해주 향약은 이이가 해주 석담 지방 향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약된 것이 아니라 해주 지방의 유생이나 향사족들이 권선징악과 상호부조를 통하여 향사풍(鄉士風)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향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한국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 - 정동행성 설치

1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용진현 출신 조휘와 정주 출신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 넘겨주었다.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

(나)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총관 조소생, 천호 탁도경이 도망치니 화주, 등주, 정주 등이 수복되었다.

- ① 최윤덕이 4군을 개척하였다.
- ②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③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 ④ 철령위 설치 문제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 ⑤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정답> ②

(가)에 '용진현 출신 조휘와 정주 출신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 넘겨주었다.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고종 45년인 1258년의 일이다. 몽골군이 동여진을 경유하여 화주에 이르렀을 때 조휘와 탁청 등이 동북면 병마사 신집평을 죽이고,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면서 몽골에 투항하자 몽골이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쌍성총관부를 둔 것이다.

(나)에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총관 조소생, 천호 탁도경이 도망치니 화주, 등주, 정주 등이 수복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1364)와 이자춘(1315~1360)*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이자춘(1315~1360):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아버지(부친)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것은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 여기서 '정동'은 일본 정벌을 뜻하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기관인 (원) 중서성의 지방 파견 기관을 뜻한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최윤덕(1376~1445)이 4군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4군이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10여 년이 더 걸림).
- ③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 ④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위화도 회군 발생).
- ⑤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

19 - 경복궁

19.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대왕대비가 전교하였다. “(가)은/는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란에 의해 불타버린 후 미처 다시 짓지 못하여 오랫동안 뜻있는 선비들의 개탄을 자아내었다. …… 이 궁궐을 다시 지어 중흥의 큰 업적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과 함께 의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고종실록』—

- ①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 ③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
- ④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 ⑤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정답> ①

'대왕대비가 전교하였다. (가)은/는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란에 의해 불타버린 후 미처 다시 짓지 못하여 오랫동안 뜻있는 선비들의 개탄을 자아내었다. …… 이 궁궐을 다시 지어 중흥의 큰 업적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과 함께 의논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가 『고종실록』으로 이를 통해 자료 속 '(가) 궁궐'은 곧 경복궁임을 알 수 있다.

경복궁은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이다(1395, 태조 4).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北闕)로 불리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사용되었다(1865(고종 2)~1868(고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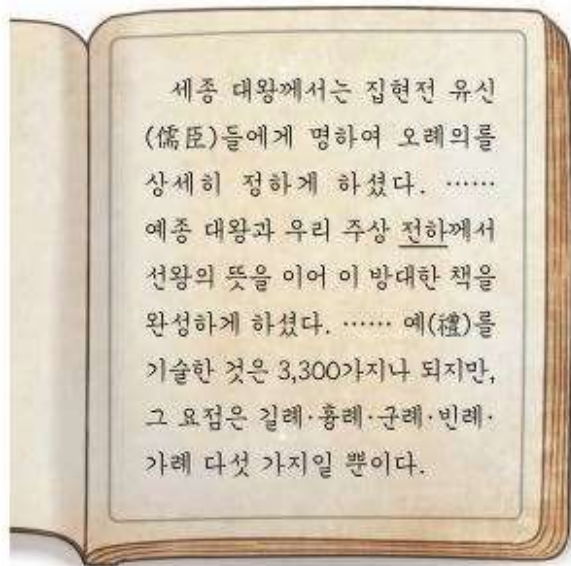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된 궁궐은 창경궁이다.
- ③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던 궁궐은 창덕궁이다.
- ④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던 궁궐은 경희궁이다. 본래는 경덕궁이라 불렸다. 참고로 경복궁은 북궐,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렸다.
- ⑤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덕수궁(석어당)이다(1613(광해군 5), 계축옥사).

20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20.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 ②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 ④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되었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정답> ①

'세종 대왕께서는 집현전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오례의를 상세히 정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예종 대왕과 우리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이 방대한 책을 완성하게 하셨다. 예(禮)를 기술한 것은 3,300가지나 되지만. 그 요점은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 다섯 가지일 뿐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에서 가리키는 '방대한 책'은 국조 오례의를 가리키는 바(1474, 성종 5) 밑줄 그은 '전하'는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재위 1469~1494)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성삼문(1418~1456) 등이 상왕[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것은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단종 복위 운동, 사육신).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신해통공).
- ④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1482~1519)가 사사된 것은 중종 14년인 1519년의 일이다(기묘사화).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1542~1590)과 심의겸(1535~1587)이 대립한 것은 1572년(선조 5)에서 1575년(선조 8)까지의 일이다.

21 - 승정원

21.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 ②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다.
- ③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 ④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다.

정답> ④

'은대계회도'라는 제목 아래 '이것은 우부승지 이현보와 그가 속한 (가) 관원들의 친목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상단에는 계획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단에는 축하 시, 하단에는 도승지 등 계원의 관직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은대는 (가)의 별칭이며, 정원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 기관인 승정원을 가리키는 알 수 있다. 승정원은 은대(銀臺),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언사(代言司)라고도 불리었다.

오답 해설>

- ①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던 기구는 사헌부이다.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구인 사헌부의 별칭으로는 상대(霜臺) 외에도 헌부·백부(柏府)·오대(烏臺) 등이 있었다.
- ②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던 기구는 사역원이다. 한어(漢語), 왜어(倭語),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③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기구는 관상감이다(1466, 세조 12)(서운관에서 개칭).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던 기구는 의금부이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로, 조옥(詔獄) 외에 금오(金吾), 왕부(王府)라고도 불렸다.

22 -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2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 ② (나) -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이다.
- ③ (다) -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되었다.
- ④ (라) - 판축 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 토성이다.
- ⑤ (마) -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다.

정답> ①

'답사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가 나와 있고, 경로로 '행주산성 → 절두산 순교 성지(잠두봉 유적) → 국립 서울 현충원 → 풍납동 토성 → 암사동 유적'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정봉수(1572~1645)가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은 (평안북도의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 위치한) 용골산성에서이다(1627년 2월, 인조 5)(정묘호란).

오답 해설>

② 절두산 순교 성지는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이다(1866, 고종 3). 옳은 설명이다.

③ 국립 서울 현충원은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1955년 7월 국군 묘지로 창설되어 전사 또는 순직 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을 안장하였고, 10년 후인 1965년 3월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가 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하여 국가 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되었다. 1996년 6월 국립 묘지 관리소라는 관리 기관 명칭이 국립 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1월에는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④ 풍납동 토성은 판축 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 토성이다. 옳은 설명이다.

*판축(版築) 기법: 판축은 '판을 대고 쌓는다'는 뜻으로 판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내부에 흙 등을 얇게 부어 방망이 등으로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방법(또는 그 쌓아 올린 흙 자체)을 말한다.

⑤ 암사동 유적은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다. 옳은 설명이다.

23 - 퇴계 이황

2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 ②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③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④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 ⑤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정답> ①

'(가)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연보'가 제시되어 있다.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출생, 1534년 문과 급제, 1552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 1561년 도산 서당 설립 및 제자 양성, 1570년 별세'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퇴계 이황(1501~157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황은 고봉 기대승(1527~1572)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 편지로 논변). 사단칠정 논쟁을 줄여, '사칠 논쟁', '사칠 논변'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②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인물은 보한재 신숙주(1417~1475)이다(1471, 성종 2).

③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④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인물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이다(1649, 효종 즉위년).

⑤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한 인물은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이다(1457, 세조 3). 참고로 무오사화가 발생한 해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이다.

24 - 다산 정약용의 활동

24.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③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④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정답> ④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과회통을 편찬하다(조선 시대 홍역과 천연두 치료법)', '강진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내다(가족에 대한 각별한 사랑)',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목민관의 자세를 논하다(지방관의 청렴과 근검, 애민 정신)'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은 곧 다산 정약용(1762~1836)임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 중이던 전남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1817, 순조 17).

오답 해설>

- ①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조선에 소개한 인물은 지봉 이수광(1563~1628)이다(1614, 광해군 6).
- ②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 ③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박지원의 초기 작품으로 추정).
-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25 - 임진왜란

25. 다음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적군은 세 길로 나누어 곧장 한양으로 향했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했다고 한다. 조정에서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신립과 이일 두 장수가 병권을 받고 내려와 방어했지만 중도에 패하여 조령의 험지를 잃고, 적이 충원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하고 도성을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백성들은 모두 홍적의 칼날에 죽어가고 노모와 처자식은 이리저리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었다.

- 『세미록』 -

- ①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 ②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③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 ④ 광재우가 의병장이 되어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 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정답> ④

'적군은 세 길로 나누어 곧장 한양으로 향했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정에서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신립과 이일 두 장수가 병권을 받고 내려와 방어했지만 중도에 패하여 조령의 험지를 잃고, 적이 충원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하고 도성을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백성들은 모두 홍적의 칼날에 죽어가고 노모와 처자식은 이리저리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립과 이일 두 장수', '조령의 험지' 등의 문구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전쟁은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재우(1552~1617)가 의병장이 되어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김상룡(1561~1637)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 ② 임경업(1594~1646)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것 역시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 ③ 최영(1316~1388)이 (충청도) 홍산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은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의 일이다(홍산 대첩).
- ⑤ 신류(1619~1680)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조선 효종 9년인 1658년의 일이다(제2차 나선 정벌)(참고로 제1차 나선 정벌은 1654년(변급)).

26 - 전북 전주의 역사적 사실

26.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 ②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
- ③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향전을 벌인 곳을 찾아본다.
- ④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를 조사한다.
- ⑤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검색한다.

정답> ④

'○○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이라는 제목 아래 업로드한 동영상으로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 '6·25 전쟁 중 소실된 전라 감영 복원',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 성당'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동고산성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승암산에 있는 산성으로 견훤의 궁터로 전해지는 곳이다. 또 전라 감영 역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조선 시대 감영터를 가리키고, 천주교 전동 성당 역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성당을 말한다(1914). 성당이 세워진 곳은 천주교도의 순교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목의 '○○시'는 곧 (전북) 전주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이 건립된 장소 역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다.

오답 해설>

- ① 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는 경기 수원이다(1793).
- ② 홍경래(1771~1812)가 난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은 관서[평안북도] 지역이다(1811.12~1812.4).
- ③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향전을 벌인 곳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의 남한산성이다(1636.12~1637.1).
- ⑤ 유계춘(?~1862)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은 경남 진주이다(1862.2).

<27번 해설>

*석전대제(釋奠大祭):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성균관의 대성전)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으로, 문묘대제 또는 석전제(고기를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의식)로도 부른다.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典範)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다. 1986년에 국가 무형 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ㄱ. (1895년 2월의)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진 교육 기관은 한성 사범 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를 들 수 있다(각 1895.4/1895.5).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27 - 시대별 주요 교육 기관

27. (가)~(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학생의 재학 연한은 9년으로 하되 우둔하여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주와 기량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 나마에 이르면 졸업하였다.
- (나) 7재를 두었는데,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재, 상서를 공부하는 대빙재, 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 주례를 공부하는 구인재,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재,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재이다.
- (다) 입학생은 생원·진사인 상재생과 유학(幼學) 중에서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동재와 서재에 기숙하면서 공부하였으며, 아침·저녁 식당에 들어가 서명하면 원점 1점을 얻었다. 원점 300점을 얻으면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 (라)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들, 우원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명문가 자제들을 입학시켰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였으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公院)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보 기>

- ㄱ. (가) -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 ㄴ. (나) -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 ㄷ. (다) -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하였다.
- ㄹ. (라) -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가)에 '학생의 재학 연한은 9년으로 하되 우둔하여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주와 기량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 나마에 이르면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 교육 기관은 (통일) 신라 신문왕 2년인 682년에 설치된 국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국학으로 되돌림).

(나)에는 '7재를 두었는데,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재, 상서를 공부하는 대빙재, 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 주례를 공부하는 구인재,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재,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재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한 교육 기관은 고려의 국자감이다(1109, 고려 예종 4).

(다)에는 '입학생은 생원·진사인 상재생과 유학(幼學) 중에서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동재와 서재에 기숙하면서 공부하였으며, 아침·저녁 식당에 들어가 서명하면 원점 1점을 얻었다. 원점 300점을 얻으면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다) 교육 기관은 성균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라)에는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들, 우원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명문가 자제들을 입학시켰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였으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公院)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라) 교육 기관은 조선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에 설립된 육영 공원임을 알 수 있다(~1894.1).

- ㄱ. 국학은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된 교육 기관은 조선의 향교이다.
- ㄷ.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한 교육 기관은 성균관이다. 옳은 설명이다.

28 -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모습

28.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재산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
- 어제 울타리 밖의 몇 되지기 밭에 담배를 파종하였다.
- 금년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25근에 100전이었다고 한다.

- 『노상추일기』 -

- 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 ②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역관
- ③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만드는 장인
- ④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
- ⑤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정답> ③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재산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과 '어제 울타리 밖의 몇 되지기 밭에 담배를 파종하였다', '금년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25근에 100전이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인삼', '담배', '목화'와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조선 후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처인 『노상추일기』는 노상추(1746~1829)라는 조선 후기의 무관이 남긴 일기로, 조선 후기 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사회 생활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료이다(노상추가 17세 되던 1763년부터 84세로 사망한 1829년까지 67년간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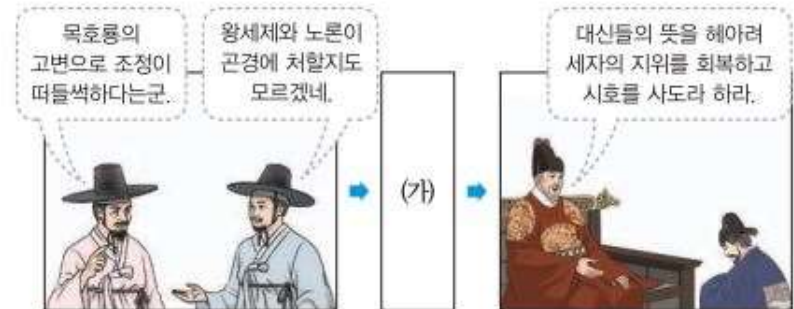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만든 것은 고려 숙종 때의 일이다(1102, 고려 숙종 7).

오답 해설>

- 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활약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역관이 있었던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이 유행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이 생겨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29 - 이인좌의 난

29.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장악하였다.
- ②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③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④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 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정답> ④

왼쪽 그림의 말풍선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들썩하다는군'이라는 말과 '왕세제와 노론이 곤경에 처할지도 모르겠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목호룡(1684~1724)의 고변이란 조선 경종 2년(1722) 음력 3월에 소론측에 가담한 목호룡(1684~1724)이 노론이 세 가지 수단(삼급수, 즉 칼, 독약, 폐출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 경종을 시해하거나 내쫓으려 했다는 고변으로 신임사화*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다.

*신임사화: 왕통 문제(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여 숙청한 사건이다. 경종 원년인 1721년 신축년과 재위 2년인 1722년 임인년에 일어난 사화라 하여 신임사화라 부른다. 이때 김창집, 이이명, 이견명, 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수많은 인물이 화를 입었다.

오른쪽 그림의 말풍선에는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영조가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직후 행한 일이다[임오화변, (1762년 7월, 영조 38)].

이인좌(1695~1728)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이인좌의 난, 무신란).

오답 해설>

- ① 이괄(1587~1624)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장악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
- ② 예송이 발생한 것은 조선 현종 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③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한 것은 두 차례이다. 태조 7년인 1398년 8월에 일어난 것이 첫 번째이고(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의 난, 무인정사의 난, 또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함), 1400년 1월에 일어난 것이 두 번째이다(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 함).
- ⑤ 희빈 장씨(1659~1701)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한 것은 숙종 15년인 1689년의 일이다(기사환국).

30 - 텐진 조약(갑신정변)

30.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 ……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 우영사 민영익이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서 문밖으로 나왔는데, 자객 다섯 명이 잠복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며 습격했다.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되돌아와서 대청 위에 쓰러졌다.

- 『대한계년사』 -

- ① 김기수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 ②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③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④ 박규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 ⑤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⑤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 우영사 민영익이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서 문밖으로 나왔는데, 자객 다섯 명이 잠복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며 습격했다.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되돌아와서 대청 위에 쓰러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조선 고종 21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임을 알 수 있다(188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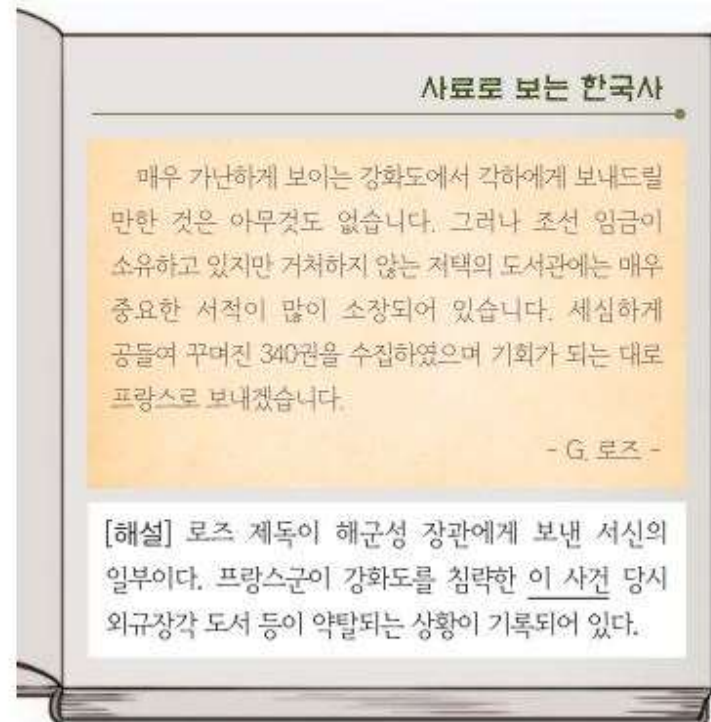
갑신정변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1885년 4월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김기수(1823~1894)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고종 13) 4월의 일이다(~윤6월).
- ②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
- ③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
- ④ 박규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1862년 5월에 삼정이정청 설치).

31 - 병인양요

31.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 ②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 ③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④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 ⑤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④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의 소유하고 있지만 거처하지 않는 저택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권을 수집하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는 내용이 'G.로즈'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설로 '로즈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당시 외규장각 도서 등이 약탈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사료의 밑줄 그은 '이 사건'은 병인양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66.10).

양헌수(1816~1888)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 고종 3).

오답 해설>

- 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사건으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들 수 있다(각 1882.6~7/1884.12).
- ②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진 사건은 임오군란이다. 1882년(고종 19) 8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 ③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 ⑤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 거문도 사건).

32 - 대한 제국 시기의 사실

32.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②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③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였다.
- ④ 지계아문을 설립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⑤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정답> ⑤

'고종은 이곳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궁에서 국호를 (가)(으)로 선포했습니다. 환구단은 일제에 의해 헐려버렸고 지금은 황궁우가 외로이 남아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한 제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로 대한 제국을 선포한 것은 재위 34년인 1897년 10월의 일이다(1897.10.12). 대한 제국은 이때부터 일제에 의해 병탄되는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다.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관립 외국어 교육 기관인) 동문학이 설립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8월의 일이다(통변 학교).

오답 해설>

- 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6년인 1899년 8월의 일이다.
- ②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설치된 것 역시 고종 36년인 1899년 6월의 일이다.
- ③ 이범윤(1856~1940)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한 것은 고종 40년인 1903년 7월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02년 6월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파견하였다가 이듬해 7월에 (북변)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 ④ 지계아문을 설립하여 지계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901.10~1904.4).

33 - 화폐 정리 사업

3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동화에 대한 처분안을 들어보면,
갑(甲)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2전 5리의 비율로 교환한다.
을(乙) 부정한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1전의 비율로 매수한다.
매수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절단하여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병(丙) 형체와 품질이 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다.
:
이른바 폐제(幣制) 개혁은 통화를 금폐(禁絶)하여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폐제 개혁에 관한 진정서」-

- ① 독립 협회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 ④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동화에 대한 처분안을 들어보면, 갑(甲)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2전 5리의 비율로 교환한다. 을(乙) 부정한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1전의 비율로 매수한다. 매수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절단하여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병(丙) 형체와 품질이 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른바 폐제(幣制) 개혁은 통화를 금폐(禁絶)하여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는 '한국 폐제 개혁에 관한 진정서'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재정 고문으로 온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진행된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905.7~1909.12).

오답 해설>

- ① 독립 협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고종 35년이자 광무 2년인 1898년의 일이다.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대한 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 ④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7~12).
- 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한 계기가 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에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장정 때문이었다(제37관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한 것은 고종 26년인 1889년 10월의 일이다. 참고로 같은 해 5월에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고(황해도 관찰사 조병철), 이듬해인 1890년 2월에도 같은 황해도에서 다른 관찰사에 의해 방곡령이 선포되었다(황해도 관찰사 오준영).

34 -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

34.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1882	1894	1896	1904	1905	1910
(가)	(나)	(다)	(라)	(마)	
임오 군란	갑오 개혁	아관 파천	러일 전쟁 발발	을사늑약	국권 피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군대 해산에 맞서 시위대 봉기'라는 제목 아래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한 데 이어 시위대 부대원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해 일본군과 남대문 일대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은 1907년 8월 1일로, 이는 1907년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 각서에 의한 것이었다.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당시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1869~1907)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연표에서는 을사늑약이 강요된 1905년에서 국권이 피탈된 1910년 사이의 시기인 '(마) 시기'에 해당한다.

35 - 단재 신채호의 활동

35. 밑줄 그은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 ③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 ④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정답> ⑤

'나는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습니다. 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정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나'는 단재 신채호(1880~193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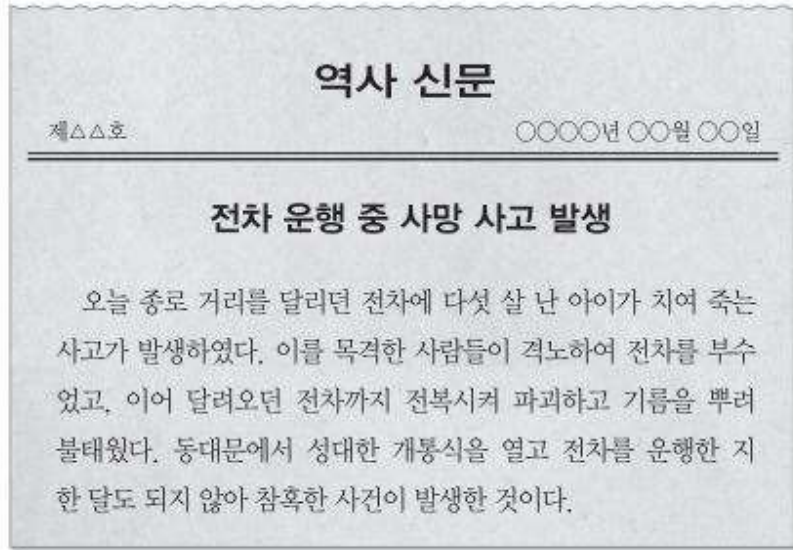
신채호는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와 민세 안재홍(1891~1965)을 들 수 있다(1934~1938).
- ②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95~1925)이다(1909.3).
- ③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인물은 육당 최남선(1890~1957)이다(1928.12).
- ④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인물은 백남운(1894~1979)이다(1933).

36 - 대한매일신보의 창간

36.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였다.
- ②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③ 이만손 등이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 ④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되었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 ②

'전차 운행 중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종로 거리를 달리던 전차에 다섯 살 난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격노하여 전차를 부수었고, 이어 달려오던 전차까지 전복시켜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것은 대한 제국 광무 3년(고종 36)인 1899년의 일이다(18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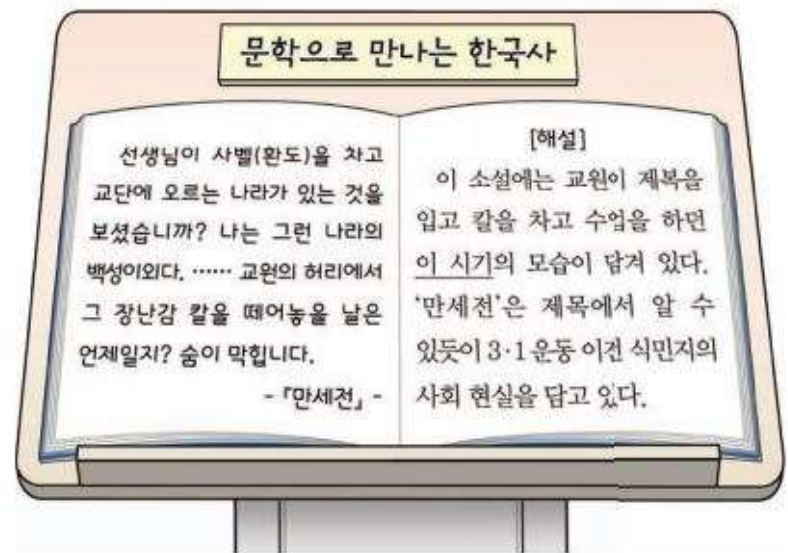
(영국인) 베델(1872~1909)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3.7~1884.5).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병사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되었으며, 미국 뉴욕에서 채스터 앨런 아서(재임 1881-1885, 제21대)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 ③ 이만손 등이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여) 영남만민소를 올린 것은 1881년(고종 18) 2월의 일이다(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인 1880년대의 개화 반대 운동).
- ④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37 -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37.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 ②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 ③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 ④ 미곡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 ⑤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정답> ②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왼쪽에 『만세전』의 내용이 나와 있다.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는 내용이다. 이어 해설로 '이 소설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이 시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만세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 운동 이전 식민지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10년대임을 알 수 있다.

회사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으로, 1920년 4월에 이르러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오답 해설>

- ① 애국반이 조직되어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1938년 7월부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반은 1938년 7월 7일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 조직되면서 각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되었다.
- ③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④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 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령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 ⑤ 국가 총동원법이 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

38 - 물산 장려 운동

38. (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 ②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③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 ④ 한성 은행, 대한 천일 은행 등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신문 광고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래, 이 광고는 민족 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가) 중에 등장했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주로 192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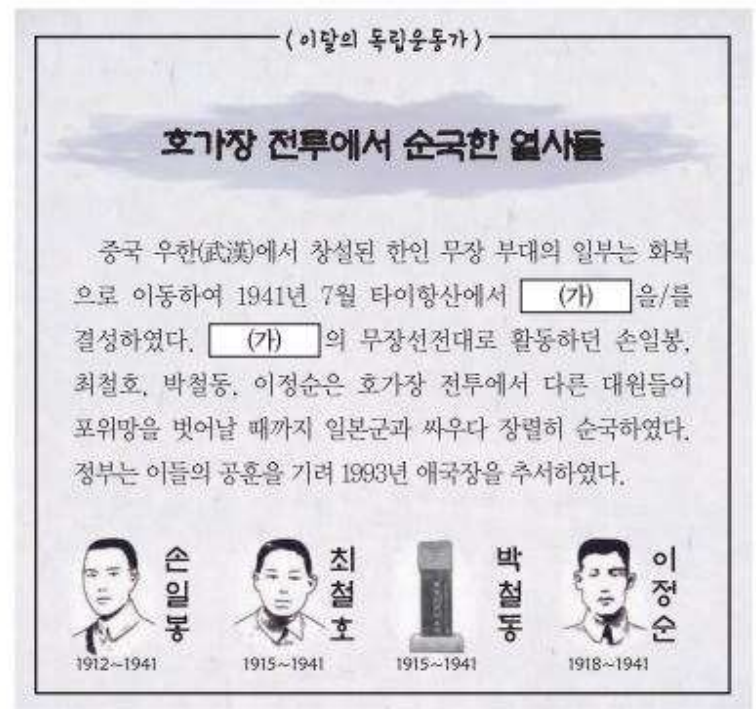
물산 장려 운동 때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자작회(自作會)는 1922년 12월 서울에서 조직된 국산품 애용 계몽 단체이고, 토산 애용 부인회 역시 1923년 2월 서울에서 조직되어 (물산 장려 및)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한 여성 중심의 민족주의 단체이다.

오답 해설>

- ①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된 대표적인 민족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②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 운동 역시 국채 보상 운동이다.
- ④ 한성 은행이 설립된 것은 조선 고종 34년이자 광무 원년인 1897년 2월의 일이다. 또 대한 천일 은행이 설립된 것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1월의 일이다. 두 은행 모두 민족계 은행으로, 특히 대한 천일 은행은 설립 시부터 고종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민족) 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다(1929.1.13~4.6).

39 -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조선 의용군)

39.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②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 ③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④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정답> ④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열사들'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 우한(武漢)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 부대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여 1941년 7월 타이항산에서 (가)을/를 결성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무장선전대로 활동하던 손일봉(1912~1941), 최철호(1915~1941), 박철동(1915~1941), 이정순(1918~1941)은 호가장 전투에서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을 벗어날 때까지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3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조선 의용대가 중국 한구에서 조직된 것은 1938년 10월이고,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독립 동맹이 지도하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2년 7월의 일이다. 또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호가장은 중국 하북성 태항산 줄기에 닿는 작은 마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는 1942년 7월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대표적인 부대(독립군 연합 부대가 싸움)는 홍범도(1868~1943)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였다(1920.6.7).
- ② 총사령 양세봉(1896~1934)의 지휘 아래 활동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이다(1930년대 전반 활약).
- ③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1940.9). 요컨대, 한국 광복군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초부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동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군단(총재 서일)이다(1920.12)(자유시 참변, 1921.6).

40 - 한인 애국단

40.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 ②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 ④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가) 소속 최흥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김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나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가)이/가 다양한 의거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 속 '(가)'는 백범 김구가 조직한 의열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1.10).

한인 애국단에는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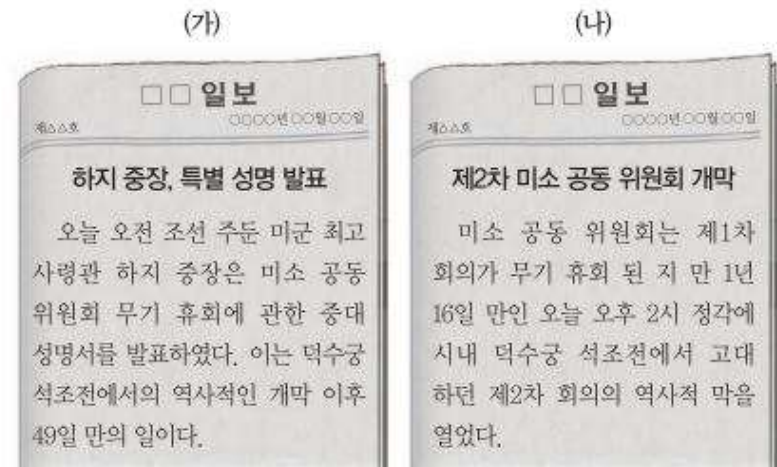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의 일이다(1937.7.7). 한인 애국단이 결성된 것은 1931년 10월의 일이다.
- ② 조선 혁명 간부 학교가 설립된 것은 1932년 10월의 일이다.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④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한 단체는 한국 독립군(총사령 지청천)이다(1933.7).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된 것은 신민회이다(1911.9, 넓게 보면 1910.12~1913.7).

41 - 좌우 합작 위원회(좌우 합작 7원칙)

4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④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정답> ④

(가)에 '하지 중장, 특별 성명 발표'라는 제목 아래 '오늘 오전 조선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 위원회 무기 휴회에 관한 중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역사적인 개막 이후 49일 만의 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휴회하게 된 것은 1946년 5월 9일의 일이다(1946.3.20~5.9). (나)에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막'이라는 제목 아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제1차 회의가 무기 휴회된 지 만 1년 16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시내 덕수궁 석조전에서 고대 하던 제2차 회의의 역사적 막을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막한 것은 1947년 5월 21일의 일이다(1947.5.21~10.18).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참고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6년 7월 25일이고, 해체된 것은 1947년 10월 6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10월 19일의 일이다.
-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16일의 일이다(~28일까지 진행).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48년 10월 23일의 일이다.
- 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된 것은 1947년 11월 14일의 일이다.

42 - 발췌 개헌(제1차 개헌)

42.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이날 본회의는 하오 8시 정각에 개의되어 전원 위원회의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를 접수한 후 김종순 의원의 각 조항 설명이 있는 다음, 질의도 대체 토의도 아무것도 없이 표결은 기립 표결로 작성하여 재석 166인 중 163표로써 실로 역사적인 결정을 보았다. 표결이 끝나자 신익희 임시 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써 "본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고 최후의 봉을 힘있게 3타 하였으며 그 음성은 몹시도 떨렸다.

1948	1953	1959	1964	1976	1987
(가)	(나)	(다)	(라)	(마)	
5·10 총선거	정전 협정 체결	경향신문 폐간	6·3 시위	3·1 민주 구국 선언	6·29 민주화 선언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이날 본회의는 하오 8시 정각에 개의되어 전원 위원회의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를 접수한 후 김종순 의원의 각 조항 설명이 있는 다음, 질의도 대체 토의도 아무것도 없이 표결은 기립 표결로 작성하여 재석 166인 중 163표로써 실로 역사적인 결정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표결이 끝나자 신익희 임시 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써, 본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고 최후의 봉을 힘있게 3타 하였으며 그 음성은 몹시도 떨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발췌 조항', '기립 표결로 작성하여 재석 166인 중 163표로써', '신익희 임시 의장' 등의 구절을 통해 주어진 자료가 가리키는 것은 1952년 7월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공포된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안)'임을 알 수 있다(1952.7.7).

주어진 연표에서는 1948년의 5·10 총선거와 1953년의 정전 협정 체결(7월) 사이인 '(가)' 시기에 해당한다.

43 - 4·19 혁명

43.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 ④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정답> ①

'(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제목 아래 답사 장소로 '옛 경무대 앞(효자동 삼거리) → 옛 수송초등학교(종로구청) → 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 → 옛 서울대 문리대(마로니에 공원)'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또 효자동 삼거리에서는 '경무대 앞 경찰의 발포' 사진이, 종로구청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수송초 학생' 사진이,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려대 학생 시위' 사진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교수단 시위' 사진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에 발생한 '4·19 혁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를 몰락시키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면 내각: 허정 과도 정부의 주도하에 개정된 제3차 개헌에 따라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로 출범한 1960년 8월 12일에서부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하였다. '장면 정부' 또는 '제2공화국'으로도 부른다.

오답 해설>

- ②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부·마 민주 항쟁'이다(1979.10.16~20).
- ③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는 '6·3 시위'가 있다(1964.6.3).
- ④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된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1980.5.18~27).
-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 항쟁'이다(1987.6).

44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44.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 ②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 ③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 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정답> ③

'장준하(1918~1975)'라는 인물의 발언으로,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장준하를 비롯한 함석헌,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 재야 민주 인사들의 주도로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12월의 일이다(1973.12.24~1974.1.8). 박정희 정부는 날로 확산되어 가는 개헌 운동을 막고자 1974년 1월 1일 긴급 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밑줄 그은 '현행 헌법'은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 이른바 '유신 헌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2.12.5~1980.10.27). 참고로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2월에 치러진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1985.2.12)에서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에 의해 같은해 12월부터 '직선제 개헌 1천만명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도 있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제59조 1항).

오답 해설>

- 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것은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
- ②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것은 제6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9.10).
-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한 것은 제8차 개헌 때의 일이다(1980.10).
- 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한 것은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

45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5.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②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⑤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⑤

'(가) 정부 발행 우표 모음첩'이라는 제목 아래 '포항 종합 제철 준공, 경부 고속 도로 준공,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기념하는 우표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포항 종합 제철이 준공된 것은 1973년 7월*이고, 경부 고속 도로가 준공된 것은 1970년 7월의 일이다. 또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된 것은 1977년 12월의 일로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된 것은 1973년 7월의 일이다(1973.7.3, 이른바 '7·3 준공', 1970년 4월 1일 착공).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4월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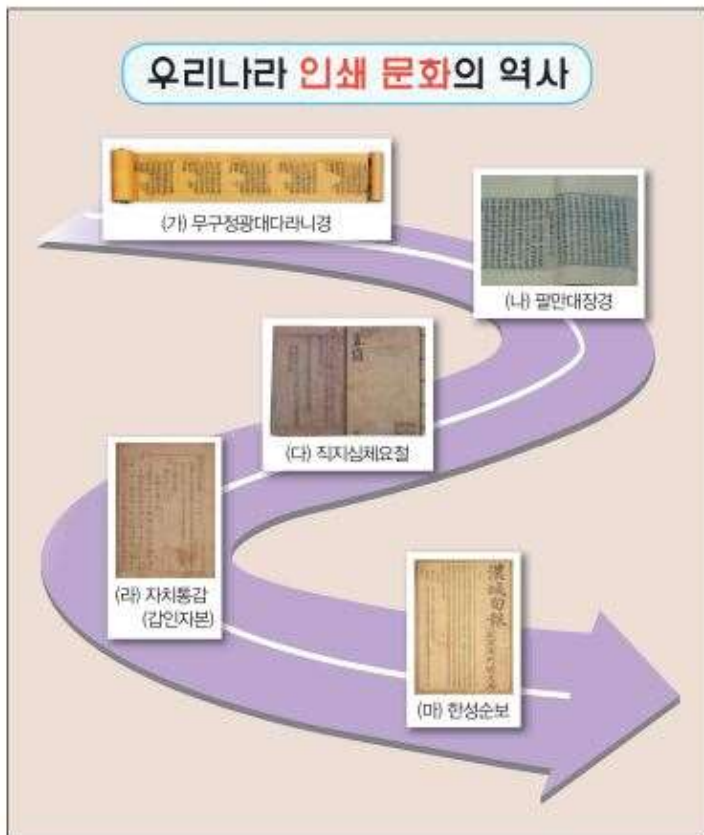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의 일이다.
- ②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일이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3.8.12).

46 -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

4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 ② (나) -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었다.
- ③ (다) -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다.
- ④ (라) - 이천,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 ⑤ (마) - 납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정답> ①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나) 팔만대장경, (다) 직지심체요절, (라) 자치통감(갑인자본), (마) 한성순보'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는 관청인 주자소가 설치된 것은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불경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전반(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통일 신라 시대).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오답 해설>

②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었다(1236~1251, 고려 고종 23~38). 옳은 설명이다.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 즉 재조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으로(1236, 고종 23). 본사는 피난 도읍지인 강화에 두고 본사는 진주 관내의 남해현에 두었다.

③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다(1377, 고려 우왕 3). 옳은 설명이다. 직지, 즉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④ 자치통감은 원래 중국 송(宋)의 사마광(1019~1086)이 편찬한 편년체 중국 통사이다(1065~1084). 조선에서 갑인자*로 찍어낸 갑인자본 자치통감을 간행한 것은 조선 세종 18년인 1436년의 일이다(윤회, 권제 등이 교정하고 주석을 붙여 간행).

*갑인자(甲寅字): 이천, 장영실 등이 세종 16년인 1434년에 주조한 금속 활자

⑤ 한성순보는 납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1883, 조선 고종 20). 옳은 설명이다. 한성순보는 근대적 신문의 효시이다.

47 -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

47. 밑줄 그은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 ②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 ③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정답> 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이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지침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종의 언론 통제 보도 지침이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86년 9월,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발행하던 월간 『말』지(9월호)를 통해 알려졌다(일명 '보도지침 사건').

*전두환 정부 시기: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다섯 번째 공화국(제5공화국)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로,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다.

**노태우 정부 시기: 1988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지속(제6공화국 시작)

오답 해설>

②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1월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다만 전방 접적 지역 9개군 중 65개 읍·면, 후방 해안 지역 43개군 중 221개 읍·면, 도서 지역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당시 명칭) 소속 모든 도서 254개, 해상 해안 3해리는 제외되었다. 참고로 야간 통행금지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의 하지 사령관에 의한 군정포고 1호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야간 통행금지는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제되기도 하였다.

③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1월의 일이다(1987.1.14).

④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3월의 일이다(1982.3.27). 참고로 한국 야구 위원회(KBO)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말이다.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2).

48 -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

48.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다.
- ④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정답> ④

'대통령, 내일 북한 대표단 접견'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 참고로 한·중 수교가 체결된 것은 1992년 8월이고(1992.8.24),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전인 1990년 9월의 일이다(1990.9.30). 이외 노태우 정부는 당시 동구권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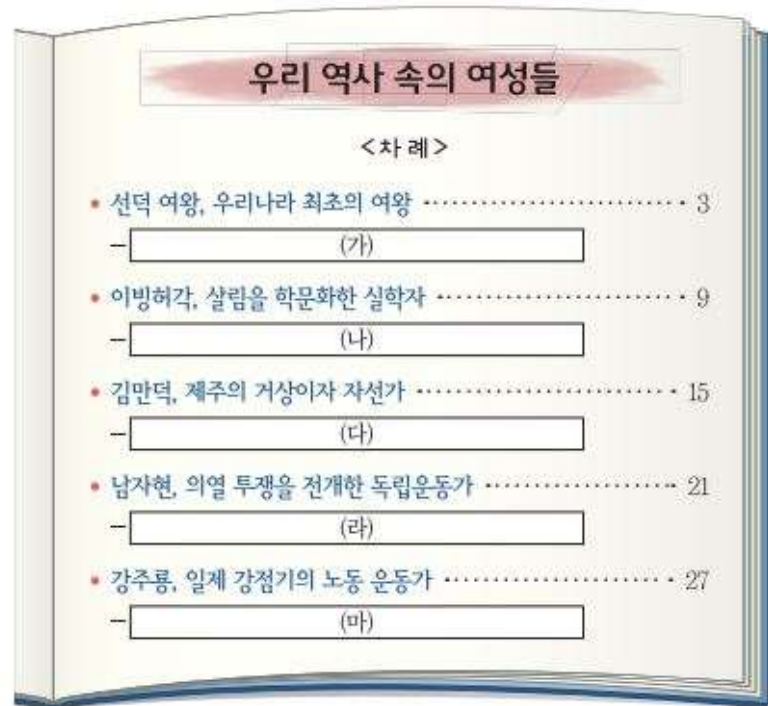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10·4 남북 공동 선언).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
- ③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이 논의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을 거행하였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

49 -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49.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우다
- ② (나) - 가정 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총서를 저술하다
- ③ (다) - 재산을 기부하여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다
- ④ (라) -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다
- ⑤ (마) -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하다

정답> ④

남자현 지사(1872~1933)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간도로 건너가 서로군정서에 가입하고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는 등 계몽 활동에 힘쓴 독립운동가이다(독립군의 어머니라 불림).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였고, 국제 연맹 리튼 조사단(하얼빈 방문)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한 혈서('조선 독립원')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된 뒤 순국하였다.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이 발행된 것은 1941년 2월부터이다(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국 광복군이 조직된 것은 1940년 9월 중국의 충칭).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선덕 여왕(재위 632-647, 제27대)은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웠다. 첨성대를 세운 것은 선덕 여왕 2년(633) 혹은 16년(647)의 일이고,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 ②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총서를 저술한 인물은 빙허각 이씨, 즉 이빙허각(1759~1824)이다. 규합총서는 가정 살림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글로 저술한 책으로, 조리법, 농사법, 태교와 육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1809, 순조 9).
- ③ 김만덕(1739~1812)은 재산을 기부하여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제주의 거상 김만덕은 조선 정조 19년인 1795년에 자신의 전 재산으로 육지의 곡식을 구매하여 연이은 흉년과 태풍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제주도민들을 구휼하였다.

⑤ 강주룡(1901~1931)은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하였다(1931.5.28). 옳은 설명이다. 평양 평원 고무 공장에 다녔던 노동자 강주룡(여)은 임금 삭감에 항의하여 파업을 주도하던 중 일경의 간섭으로 공장에서 쫓겨나자 지상 12m 높이의 을밀대(평양의 고구려 시대 누정) 지붕 위로 올라간 후 무산자의 단결과 노동 생활의 참상을 호소하였다. 체포되어 평양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7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등 항의하다 결국 이듬해 서른한 살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다.

***강주룡의 말**

"고무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양철 지붕 밑에서 화로를 안고 비지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고무 냄새 때문에 늘 코가 얼얼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우리들의 임금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5월 16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뒤 우리는 계속 공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못 받아 굶어 죽으나 파업하다가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5월 28일 경찰을 불러 밤 11시에 우리들을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광목을 사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줄을 타고 12미터나 되는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9시간 반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임금이 깎이는 것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금이 깎이면 평양에 있는 다른 고무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도 깎일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50 - 세시 풍속, (칠월) 칠석

50. 밑줄 그은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단오 ② 칠석 ③ 백중 ④ 동지 ⑤ 한식

정답> ②

'이곳은 남원 광한루원의 오작교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시대 남원 부사 장의국이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이날에는 여인들이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날'은 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인, (칠월) 칠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삼국 시대의 덕흥리 고분 벽화에 설화 속 견우와 직녀로 보이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고려 시대에는 공민왕이 왕비와 함께 궁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하였다. 또 조선 시대에는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인 절제(節制)*를 거행하였다.

*절제: 절일제(節日製)를 줄인 말로,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을 대상으로, 명절인 인일절(人日節, 음력 정월 초이렛날)·상사절(上巳節, 삼월 삼짇날)·칠석절(七夕節)·중양절(重陽節, 9월 9일)에 실시한 과거를 말한다.

오답 해설>

- ① 단오는 매년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오월) 단오]. 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 한다.
③ 백중은 매년 음력 7월 15일에 행하는 세시 풍속이다.
④ 동지는 매년 음력 11월 중순에 행하는 세시 풍속이다. '작은 설'이라고도 하였다.
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양력으로서는 대개 4월 5일경, 4월 6일이 되기도 함)에 행하는 세시 풍속이다.

- 이 상 -